

# 벌써 폭염...문 닫은 '무더위 쉼터' 어찌나

### 코로나19 확산에 경로당 등 폐쇄 광주 폭염 예상 일수 20~25일 시 "시민불편·피해 최소화 노력"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역대급 폭염 발생까지 예상돼 지자체가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폭염이 일찌감치 찾아왔지만, 코로나19 생활 방역 기준에 따라 무더위 쉼터로 사용되는 동네 경로당 등이 폐쇄돼 있어 올 여름 폭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올 여름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광주지역 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0.5℃~1℃, 지난해보다는 0.5℃~1.5℃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 시작됐다. 그동안 무더위 쉼터로 운영됐던 광주 금남로 4구역 만남의 장소가 코로나 19로 인해 출입이 통제된 채 텅 비어있다.

도록 동네에서 가까운 경로당, 주민센터 등이 대안이다. 광주시가 지정한 무더위 쉼터는 모두 1452곳이다. 이 중 동네 경로당이 1193곳으로 전체의 82%에 달한다. 하지만, 경로당은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잠정 폐쇄된 상태다. 따라서 폭염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독거노인들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아직까지 없어 경로당에 대한 잠정 폐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할 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무더위 쉼터를 휴관한 뒤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그늘진 실외나 대형 체육관 등을 대체 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운데 광주시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안부전

화하기, 현장방문 및 건강한 여름나기 안내, 지원물품 제공 등의 폭염 대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 여름이 지난해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측돼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서 "유관기관과 관계 부서 등과 협력해 시민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름철 폭염 예상 일수는 20~25일, 열대야 예상 일수는 17~22일로, 평년에 비해 각 5.9일과 8.5일, 지난해 각 7.7일과 15.8일 보다 많은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4개월 간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유관기관과 폭염 대응 체계를 갖추고, 도로 살수장치, 무더위 쉼터, 그늘막 운영, 재난 취약계층에 서비스 제공 등 각종 폭염 대책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게 무더위 쉼터 운영이다. 건강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폭염을 피해 쉴 수 있

### 수도권 방문 뒤 증상 발현자 광주시, 코로나 검사비 지원

광주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방문 뒤 증상 발현자의 검사비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32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를 제외한 지역 감염 사례도 없다.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학생, 교사 1869명이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도 안심할 수 없다고 보고 수도권 방문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수도권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방문 후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경우 검사비 일체는 광주시가 부담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남 귀농인들 "단순 보조금 아닌 지속적 관심 필요"

귀농어귀촌인연합회 간담회 "보조금 지원으로 끝나기보다는 귀농귀어귀촌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있었으면 합니다." "농수축산물의 가공·유통을 위해 전남도내의 관련 기관들의 도움을 받고 싶는데, 방법을 몰라 고민입니다." "용자금 받으려면 농업 이외에 다른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는데, 당장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경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4일 오전 전남도청 수리채에서 열린 전남 귀농어귀촌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한 양동철 회장 등 임원진들은 전남에 귀농귀어귀촌한 뒤 그동안 겪은 어려움과 바라는 바를 쏟아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전남도 인구정책실은 의견을 모두 적은 뒤 제도 개선 건의, 신규 정책 검토, 관련 실국 협의 등으로 분류해 도정에 반

영할 방침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매년 4만여명이 전남으로 귀농귀어귀촌을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40대 이하가 38%를 차지하는 등 이들이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 분야에 서툰데다 기존 마을공동체와 섞이지 못하고 마찰이나 갈등을 겪으면서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귀농귀어귀촌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수시로 갖기로 하고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양동철 회장은 "귀농귀어귀촌의 의미가 갈수록 희석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귀농귀어귀촌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남도와 각 시·군이 연합회와 공동으로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을 고민하고 함께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3-5년 이상 중장기 지원 방안 마련 ▲용자 지원 시 농업 외 직업 제한 규정 완화 ▲농어촌지역 빈집 강제 수용 등 대책 마련 ▲농수축산물 가공·유통 지원 등을 요청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정책관은 이에 대해 "정책의 우선 순위, 예산의 범위, 기존 마을공동체와의 협력성 등 다양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귀농귀어귀촌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서둘러 대안을 만들고, 귀농귀어귀촌인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 귀농아촌 어울림마당 등 행사에 대해서도 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해 이후 개최 방식,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日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본격화 법원, 공시송달...일본, 현금화시 강력 대응 예고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압류결정문의 '공시송달'을 결정하면서 한일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인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송달의 효력은 8월 4일 0시에 발생한다. 이때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 현금화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 압류사건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PNR의 주식 19만4천794주를 압류했다. 현금화가 이뤄지면 이미 경색될 대로 경색될 한일관계는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은 현금화 실행 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 언론 등에서선 한국산 제품 판매 인센티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으며, 따라서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판결은 청구권협정에 위배되며 곧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기본 인식하에 한국은 '사법부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고, 일본은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양국이 모두 만족할만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이 지난해 6월 이른바 '1+1' (한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뒤 이렇다 할 대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법원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8월 4일이 지난 뒤 곧바로 현금화 작업에 착수할지는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분식회계·주가조작 의혹...8일 밤 늦게 결정될 듯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8일 밤 늦게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각각되던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지시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 부회장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8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

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중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 서 영장 발부 여부가 1년 7개월간 계속된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각각 150쪽 인박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 혐의를 적고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각각 수백 쪽의 의견서에 별도로 담았다. 법원에 함께 제출한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는 이복현 부장검사 명의로 했다. /연합뉴스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풍수·사주

###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책,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6. 23(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6. 16(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명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교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태클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 기적의 침술

현대의학으로 잘못고치는 병

고혈압, 당뇨병, 중풍마비  
불치의 통증, 남부성욕감퇴

고대의술침을 한번만 맞으면  
단 한번 치료로  
모든 병을 고칩니다.

**부산 010-8491-2060**

---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양 이만호(390409-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삼동로 10, 405동 301호 (우양동, 우광아파트)  
피상속인 양 이만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지방법원 2020년 단 657호로 신청하여 2020년 5월 1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6월 5일  
• 상속인 : 이해원(650711-XXXXXX)  
광주 북구 원삼길 42(삼각동)  
이원준(700907-XXXXXX)  
서울 중랑구 면목로23길 14-3(면목동)  
• 신고기간 : 2020. 6. 5 - 2020. 8. 13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이해원의 주소

---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양 김봉호(690306-XXXXXX)  
• 최후주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214 106동 702호(용암리, 용암휴먼시아)  
• 등록기준지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중흥길 37-8  
피상속인 양 김봉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년 단 158호로 신청하여 2020년 4월 2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6월 5일  
• 상속인 : 김하늘(951110-XXXXXX)  
광주 광산구 수련로10번길 87-1, 303호 (수련동)  
• 신고기간 : 2020. 6. 5 - 2020. 8. 13.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김하늘의 주소  
광주 광산구 신가동 1010-5 1층 스카이비앤비

---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양 나인선(650502-XXXXXX)  
• 최후주소 : 전남 무안군 해제면 만송로 386-16 (만송리)  
• 등록기준지 : 전남 무안군 해제면 만송리 산72  
피상속인 양 나인선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년 단 0033호로 신청하여 2020년 6월 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6월 5일  
• 상속인 : 1.나유원(921130-XXXXXX)  
광주 남구 근남로10번길 1-2(백운동)  
2.나지현(950429-XXXXXX)  
광주 남구 근남로 10번길 1-2(백운동)  
• 신고기간 : 2020. 6. 5 - 2020. 8. 13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2.나지현의 주소

---

### 상행안내

6월6일(토)  
▶광주청탁선안회 6월6일(토) 여수남도 상산해안트레킹, 분성동롯데마트앞 07: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7:20 영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정기구 08:00 \*다음카페 광주청탁선안회 ☎ 010 8612 2284  
6월10일(수)  
▶광주청탁선안회 6월10일(수) 충북 제천 동산-작성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후문 06:50, 교직원공제회관 07:00 \*다음카페 광주청탁선안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6월17일(수)  
▶광주청탁선안회 6월17일(수) 경남 거창 우

6월24일(수)  
▶광주청탁선안회 6월24일(수) 전북 임실 오봉산-국사봉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다음카페 광주청탁선안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 담양군 공고 제2020-782호

## 담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주민공람

담양군 담양읍 양리리 323번지 일원(양각외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담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코자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6. 05.

**담양군 수**

1. 계획 개요  
○ 계획명 : 담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위 치 : 담양군 담양읍 양리리 323번지 일원 (양각외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 적 : 기정 274,372㎡ → 변경 281,906㎡ (증 7,534㎡)
2. 담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다음  
3. 관계도서 : 계획생략(공람장소 비치)
4. 공람장소 : 담양군 도시디자인과 및 담양읍사무소
5. 공람기간 : 2020. 06. 05 - 2020. 06. 19 (14일간)
6. 주민의견 제출방법  
○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하여 담양군청 도시디자인과 또는 담양읍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양군 도시디자인과(☎ 061-380-3101)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의상봉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다음카페 광주청탁선안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